

시라야마히메 신사

<페이지 상부>

호쿠리쿠 지방을 지키는 저명한 신사

시라야마히메 신사

<http://www.shirayama.or.jp/en/index.html>

하쿠산과 시라야마히메 신사

하쿠산 신앙과 시라야마히메 신사

하쿠산은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기후현, 도야마현 4 현에 걸쳐 있습니다. 그 봉우리의 높이와 크기에 따라, 하쿠산은 몇 세기에 걸쳐 영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쿠산에서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수원(水源)이 되므로, 산기슭이나 먼 평지에 사는 사람들까지 옛날부터 하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1 년 내내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로부터 산은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기에 등산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쿠산 신앙의 확대와 동시에 사람들은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하쿠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산 정상에 향한 등산길이 만들어졌습니다.

2,100 년 이상 전에 창건됐다고 알려진 시라야마히메 신사는 몇 세기에 걸쳐 하쿠산을 등산하는 참배객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라야마히메 신사는 전국에 수천 곳 있는 하쿠산 신사의 총본궁(總本宮)입니다. 시라야마히메 신사는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도야마현, 니가타현으로 구성된 호쿠리쿠 지방을 지키는 저명한 신사이기도 합니다.

제신

모든 신사에는 특정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시라야마히메 신사는 바닷물에서 일본의 섬들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두 신, 이자나기노미코토와 이자나미노미코토를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시라야마히메 신사는 구쿠리히메노카미도 모시고 있습니다. ‘구쿠리’란 ‘있다’,

‘뭍다’는 뜻의 단어이며, 구쿠리히메는 일본을 만든 두 신이 말다툼했을 때 중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쿠리히메는 인연 맺기와 부부 원만의 여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쿠산의 눈이 녹아 흐르는 물이 4 개의 주요 하천으로 흐르고 있기에 하천과 바다를 관장하는 물의 신으로도 여겨집니다.

신사의 은혜

신사에 모신 신은 각각 참배객에게 특정 은혜를 전합니다. 시라야마히메 신사에 모셔진 세 명의 신들은 오곡 풍양, 대어, 인연 맺기 등 이 농업 지역에서 중요한 사항과 관련해 폭넓은 은혜를 전합니다.

또한 가내 평안, 교통 안전, 장사 번성, 학업 성취, 부부 원만, 행복 장수, 자손 번영 등을 기원하기에 많은 참배객이 방문합니다.

신문(神紋)

세 겹으로 된 육각형 안쪽에 우리(참외, 오이 등 박과 식물의 총칭) 꽃이라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신문(神紋)에는 상서로운 상징이 몇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은 거북이 등껍질을 나타내며, 경사스러운 장수를 의미합니다. 세 겹으로 된 육각형(산조노카마에)은 과거에서 미래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자식에게서 손자로 끊이지 않고 집안의 운수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옛날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기에 보통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었습니다. 신문(神紋)에 있는 우리 꽃은 자손이 번영하기를 바라며 신에게 기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경내

1. 오모테산도

길이 250m 의 오모테산도에는 삼나무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이 줄지어 서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신사의 장엄함을 느끼게 합니다. 입구에 있는 대형 도리이는 높이 6.4m 로, 석조 도리이 중에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크기입니다.

2. 비와 폭포

오모테산도를 따라 흐르는 깨끗한 물은 이 폭포가 원류이며, 폭포는 밤이 되면 조명에 비칩니다. 물보라 소리는 마음을 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늙은 삼나무

이 나무는 오모테산도의 데미즈야(手水舎, 정화수 두는 곳) 옆에 있습니다. 나무에는 신성한 나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데(紙垂, 벼락 모양의 종이)가 달린 굵은 금줄이

감겨 있습니다. 수령이 800 년인 이 나무의 밑동 둘레는 12m 이며 나무의 높이는 약 42m 입니다.

4. 세 그루의 삼나무 신목

이 삼나무는 1983 년에 쇼와 나루히토 천황이 과중한 씨앗이 묘목으로 성장한 후, 신성한 나무로서 이곳에 옮겨 심어진 것입니다.

5. 미소기샤와 미소기바

미소기는 하쿠산의 눈이 녹아 흐르는 물에 몸을 담그고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미소기샤는 경내 안쪽에 있는 작은 신사이며, 미소기바는 이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신사 예법

도리이 지나가기

도리이는 속세에서 신성한 부지로 향하는 통로로, 신사의 입구를 가리킵니다. 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한 번 인사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모테산도를 걷다

도리이에서 본전까지의 통로가 오모테산도입니다. 참뱃길 중앙은 신이 지나가는 길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장자리로 걸읍시다.

데미즈야에서의 정화

데미즈야(手水舎, 정화수 두는 곳)는 오모테산도의 안쪽에 있습니다. 정화하는 풍습의 기원은 신사 경내에 들어가기 전, 바다나 하천에서 의식으로 몸을 정화해야 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해당 전통은 간략화되어 참배객은 물로 손을 씻고 입을 행구는 것을 통해 미소기를 진행합니다.

데미즈야에서의 예법

- 1.오른손으로 국자를 들고 물을 퍼낸 후 왼 손바닥에 조금 물을 뿌립니다(물 대부분은 국자에 남깁니다).
- 2.왼손에 국자를 바꿔 들고 오른 손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 3.입을 행굴 때는 오른손에 국자를 들고 컵처럼 둥글게 만든 왼손에 물을 부은 후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을 행군 물은 씻을 물을 담아둔 곳 밖으로 뱉어냅니다.
- 4.양손으로 국자를 들어 올리고 물이 손잡이 쪽으로 흐르도록 하여, 국자 전체를 씻어서 깨끗이 합니다.

5.물 담은 부분을 밑으로 하여 국자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신사 참배방법

봉납

옛날에는 보통 신에게 쌀을 바쳤지만, 지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사의 배전(拜殿, 기도하기 위해 본전 앞에 지은 건물) 앞에는 뚝려 있는 나무 새전함에 있습니다. 이 새전함에 동전을 넣습니다. 특히 5 엔 동전은 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금액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2 례 2 박수 1 례

새전을 넣은 후 2 례 2 박수 1 례를 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할 때는 등이 지면과 거의 평행이 될 때까지 천천히, 깊게 머리를 숙입니다. 박수는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려 천천히 2 번 손을 맞춥니다.

신사를 나오기

신사를 나올 때 도리이를 빠져나온 후 한 번 더 뒤돌아 1 례합니다.

부적

신도의 전통에 따르면 바위나 거울 등은 몸에 지니는 자에게 신의 힘을 선사하며, 재앙이나 위험을 물리친다고 믿습니다. 긴 세월이 걸쳐 이러한 신성한 물품은 부적이라고 불리는 각양각색의 액막이가 되었고, 다양한 수요에 가호와 안심을 선사했습니다.

신직의 기도를 받아 신의 힘을 받은 부적을 구매한 사람은 평소에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적은 매년 교환하며, 신정에 오래된 것을 신성한 불로 태우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적 1,000 엔

빨간색, 파란색, 흰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합격기원 부적 1,000 엔

교통 안전 부적 1,000 엔

빨간색, 파란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인연 맺기 부적 1,000 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행운 부적 1,000 엔

출세기원 부적 1,000 엔

보물관

오랜 역사 속에서 시라야마히메 신사에는 귀중한 보물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보관된 옛 사료는 하쿠산 신앙의 초기 모습을 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입니다 또한 보물관에는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의 다이묘였던 마에다 씨의 사료를 비롯해 16 세기부터 17 세기에 걸친 귀중한 사료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보물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삶과 문화뿐만 아니라 신사와 하쿠산의 긴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4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 : 매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11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 : 매일 오전 9 시 30 분부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12 월 1 일부터 3 월 31 일 : 동절기 폐관

입관료

대인 : 300 엔

18 세 미만 : 무료

<사진 설명>

고마이누

봉황을 그린 금상감의 작은 상자